



트레이드 렌즈

TRADE LENS

투자에 초점을 맞추다.

LENS INSIGHT / No.08

신용·투자 실행·반도체 공급망을 연결하는 리서치

AI 인프라 투자기업의 신용위험과 한국 반도체 공급망

메모리 수요와 고객 자금조달의 분리

수요의 증거

확인된 칩 실적



지난 분기 매출·이익

실행의 조건

인출 가능한 자금



다음 발주·가동·수금

칩 수요가 있어도,
모든 주문이 같은 조건으로 실행되지는 않는다.

CoreWeave의 차입·계약·현금흐름과 한국 메모리 공급망을 연결해,
고객 신용위험이 발주·납기·대금 회수로 전달되는 조건을 분석한다.



01 / RESEARCH VIEW

수요의 존재와 주문의 실행 가능성은 다르다

TradeLens 판단 | 신용위험은 먼저 신규 증설과 현금 전환의 조건을 바꾼다.

핵심 결론

현재의 칩 실적과 미래의 AI 투자 실행은 다른 문제다. 기본 경로는 수요의 일괄 소멸보다, 자금·전력·고객계약이 확보된 프로젝트로의 주문 재배분이다. 국내 공급자는 최종 사용자의 이름보다 직접 계약상대방과 납품·수금 조건을 봐야 한다.

01

무슨 변화인가

칩 판매가 늘어도 인프라 투자자의 차입·담보·자기자본 조건은 악화될 수 있다.

02

왜 중요한가

미래 사용계약이 있어도 장비를 먼저 사고 가동할 자금이 없으면 발주가 늦어진다.

03

누구에게 전이되나

직접 공급자는 대금 회수에, 간접 공급자는 주문·재고·설비 투자 조정에 노출된다.

04

무엇을 확인하나

약정이 아닌 인출 가능 자금, 실제 가동, 유료 사용, 납품과 현금 회수의 연속성이다.

이 보고서의 분석 단위

TSMC의 실적, CoreWeave의 차입 구조, 국내 메모리 공급망을 하나의 매출 수치로 합치지 않는다. 서로 다른 계약의 연결이 어디서 끊길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1] [3] [10]

독자에게 남길 기준

AI 수요의 크기보다, 그 수요 중 누가 자금을 끝까지 대고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지는 구간이다.



02 / EVIDENCE & TIM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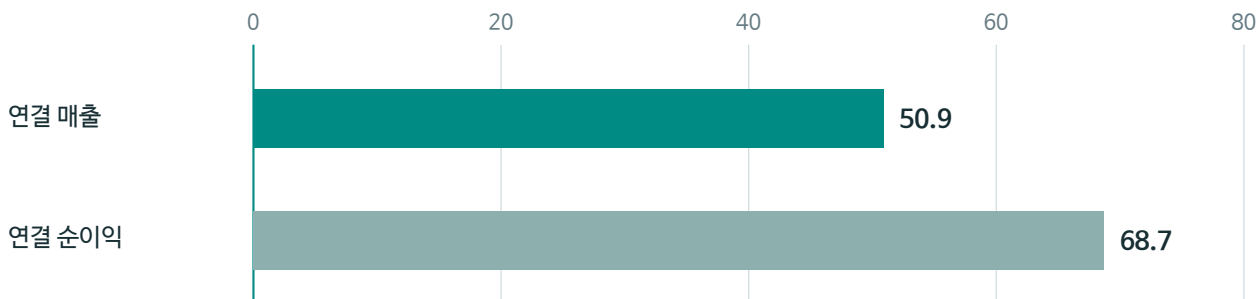
반도체 실적 개선과 차입기업의 위험 재평가는 양립한다

2026년 10월의 관측: 이미 실현한 판매와 미래 자본의 가격을 분리한다.

TSMC는 10월 15일 3분기 연결 매출 1조4,942.4억대만달러와 순이익 7,630.6억대만달러를 발표했다. 매출총이익률은 66.4%였다. 같은 시기 CoreWeave의 주식·채권 약세는 AI 투자의 차입 부담을 재평가하는 시장 움직임으로 보도됐다. [1] [2]

TSMC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 대만달러 기준



같은 분기·통화의 서로 다른 실적 항목이다. AI 매출 성장률이나 합산 지표가 아니다. [1]

구분	지표가 말하는 것	직접 말하지 않는 것
공급자 실적	지난 분기 출하·매출·이익	고객의 신규 투자가 모두 자금 확보됨
차입기업 채권 가격	향후 위험·유동성·요구수익률	기존 차입 전액의 금리가 즉시 재설정됨
국내 공급자 주가	미래 이익·할인율·수급의 재평가	이미 고객 주문이 취소됐다는 사실

분석적 의미

공급업체 실적이 좋아도 미래 주문의 금융조건은 나빠질 수 있다. 반대로 채권 가격 하락만으로 이미 실현된 수요를 가공 수 요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03 / FUNDING CAPA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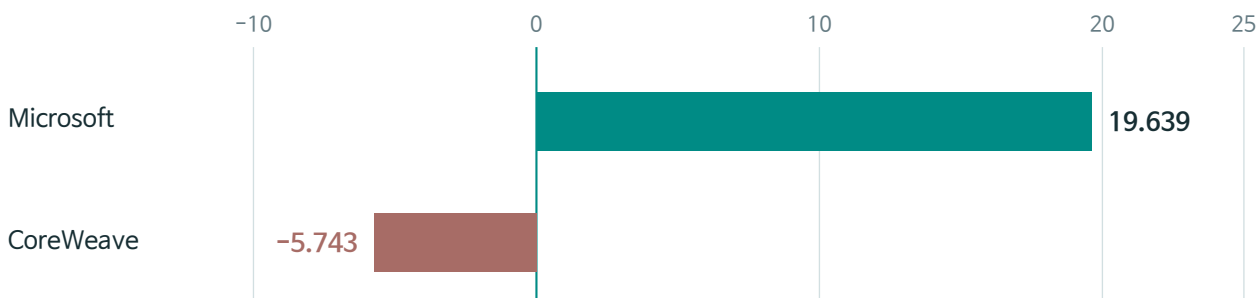
같은 AI 투자라도 자금의 출처가 다르다

영업현금으로 투자하는 기업과 신규 자금 유입이 필요한 기업을 구분한다.

2026년 4~6월 · 십억달러	Microsoft	CoreWeave
영업활동 현금흐름	55.441	0.679
유형자산 등 현금취득 ¹	35.802	6.422
위 두 항목의 차액	19.639	-5.743

영업현금 - 유형자산 등 현금취득

십억달러 · 연결



¹ CoreWeave는 자본화한 내부사용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리스원금·다른 투자·배당·차입을 모두 반영한 공통 FCF가 아니다. [3] [4]

현금 여력은 투자 지속의 완충장치이지 수익성 보증이 아니다

전사 기존 사업의 현금이 있는 기업도 개별 AI 프로젝트의 수익률을 검증해야 한다. 반대로 성장투자가 커서 차액이 음수인 기업을 그 수치만으로 지급불능이라고 판단할 수도 없다.

계약상 지급자가 누구인가 먼저다

최종 AI 이용자, 클라우드 계약자, 데이터센터 법인, GPU 구매자와 메모리의 직접 고객은 같지 않을 수 있다. 업계 평균 차입 비용을 모든 주문에 적용하지 않는다.



04 / BORROWER ECONOM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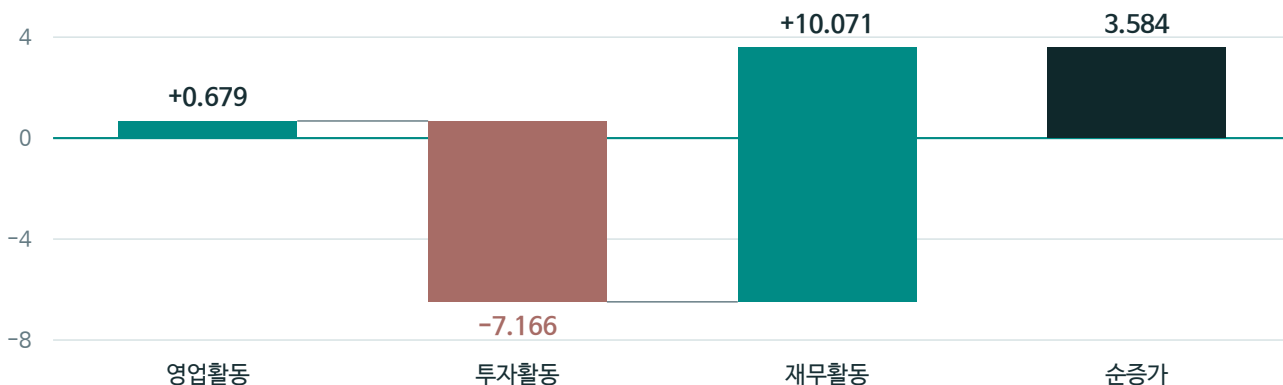
조정 EBITDA와 실제 자금조달 필요액은 다르다

CoreWeave의 연결 실적은 영업의 성장과 투자자금의 의존도를 함께 보여준다.

CoreWeave · 2Q26	십억달러	의미
매출	2.575	해당 분기의 인식 매출
조정 EBITDA	1.510	회사 정의 Non-GAAP; 현금흐름 아님
영업손익	-0.049	GAAP 영업손실
순이자비용	0.640	회계 비용; 현금 이자지급과 구분

분기 현금 증감의 연결

십억달러 · 2Q26



$0.679 - 7.166 + 10.071 = 3.584$. 현금·현금성자산·제한현금의 순증가를 설명하는 항등식이며, 일별 현금 잔액의 경로가 아니다. [3]

성장을 위한 자금과 사업의 유지비용을 구분한다

대규모 설비 확장은 미래 매출을 위한 투자다. 다만 투자현금 지출과 금융활동 유입을 분리하면, 현금 잔액 증가가 영업만으로 조달됐는지 판단할 수 있다.

국내 공급자에게 중요한 질문

차입자가 높은 EBITDA를 발표했는가보다, 이번 장비 발주를 위해 인출 가능한 자금이 있고 검수 뒤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05 / FINANCING STRUCTURES

같은 회사의 차입도 담보·만기·청구권이 다르다

대출한도, 전환사채의 표면금리, 유통 채권수익률을 하나의 조달금리로 섞지 않는다.

공표 거래	주요 조건	읽어야 할 위험
DDTL 4.0 2026.3.31 [5]	최대 85억달러; 초기 약 75억달러 변동 SOFR+2.25%, 초기 고정 약 5.9% 2032년 3월 만기	전용 담보·계약 및 인출조건 A3/A(low)는 해당 금융거래의 등급
DDTL 5.5 2026.8.10 [6]	26억달러; SOFR+5.50% 차입 약 5년 / 고객계약 평균 약 3년	계약 갱신 또는 대체 임차인 필요 Ba2/BB+는 해당 거래 등급
전환사채 가격결정 2026.9.18 [7]	37억달러; 표면금리 2.875% 2033년 4월 만기; 추가 매입옵션 별도	낮은 쿠폰 외에 전환권·잠재 희석 캡드콜 비용·현금상환 조건 고려

위 금액은 각 발표 시점의 약정·발행 조건이다. 전액 인출, 옵션 행사 또는 현재 현금 잔액을 뜻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거래의 금리 차를 전사 신용등급 변화로 해석하지 않는다.

투자적격 구조와 높은 전사 신용위험은 공존할 수 있다

특정 자산·계약에 대한 채권자의 우선권은 해당 시설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그 보호가 다른 채권자나 새 프로젝트로 자동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관전 포인트

시장의 채권수익률 상승은 다음 조달·차환의 조건을 바꾼다. 기존 고정쿠폰의 현금지출이 즉시 같은 폭으로 늘어난다는 뜻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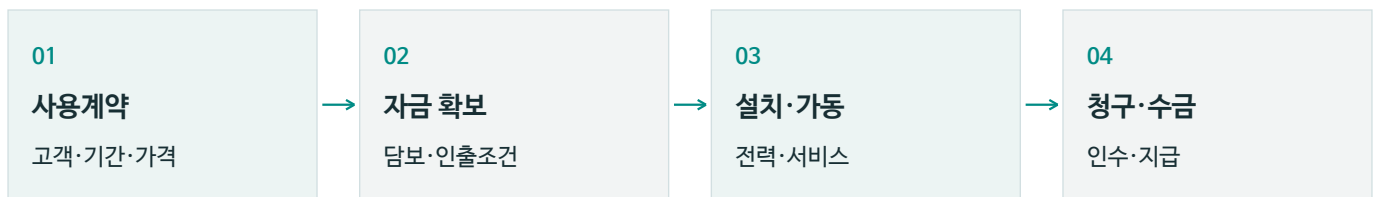


06 / CONTRACT CONVERSION

계약잔액은 현금이 아니라 실행 조건이 붙은 매출의 근거다

계약, 자금 인출, 인도·가용성, 청구·수금의 연결을 확인한다.

CoreWeave의 6월 말 revenue backlog는 약 1,040억달러다. 회사는 이를 잔여이행의무와 확정 고객계약에서 추후 매출로 인식할 것으로 추정하는 기타 금액의 합으로 정의하며, 인도와 서비스 가용성 조건을 명시한다. [3]



개념적 전환 경로. 계약잔액과 매출한도를 합산해 현금이나 시장규모로 표시하지 않는다.

계약 요소	대출 가능성에 주는 의미	남는 위험
장기·최소 구매 약정	매출 가시성과 담보화의 기반	인도 지연, 서비스 기준 미충족, 상대방 신용
단기 고단가 계약	수요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음	갱신가격과 후속 가동률은 미확정
잔여 용량 매입 약정	미판매 용량 위험의 일부 이전	계약의 종료·가용성 조건과 범위

높은 연환산 단가와 긴 회수기간은 다른 문제다

9월 17일 회사가 발표한 3~6개월 계약의 단가는 필요 전력 대비 연환산 매출 약 4,000만달러/MW다. 이를 12개월 매출이나 다른 세대 GPU의 공통 가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8]

분석적 의미

계약이 길면 가시성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계약 체결일부터 반도체 공급자의 대금 회수일까지 필요한 자금과 이행 조건은 별도로 남는다.



07 / CREDIT TRANSMISSION

신용위험은 발주·납기·대금 회수의 순서로 전이될 수 있다

아래 경로는 조건부 분석이며 특정 기업의 취소·연체가 발생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전이 구간	나타날 수 있는 조정	공급망에서 확인할 증거
신규 프로젝트	착공·GPU 구매의 연기 또는 규모 축소	취소권 행사, 확정 발주·장비 인도 일정
기존 확정 발주	인도·검수 일정이나 결제 조건의 조정	선수금, 계약자산, 재고, 매출채권 연령
대체 사업자	자금력이 있는 고객으로 주문 이동	동일 제품의 재배치, 신규 인수자·납품 일정
수요 자체 악화	유료 사용·갱신·가격 동반 악화	가동률, 갱신가격, 총 출하량과 회수 부진

주문 이전과 신규 수요를 이중 계산하지 않는다

프로젝트를 다른 사업자가 인수해 같은 장비를 설치하면 고객은 바뀌지만 전체 물량은 유지될 수 있다. 이미 설치된 GPU의 재판 매는 새 GPU·HBM 출하와 같은 거래가 아니다.

선수금은 완충장치이지만 무조건적인 이익은 아니다

먼저 받은 현금은 운전자본을 돕는다. 그러나 미이행 공급의무와 환불·보증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하며,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소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다.

핵심 판단

신용 총격의 크기는 차입금 총액보다 신규 자금 의존도와 대체 발주 가능성에 달려 있다. 주문의 이동과 산업 전체의 축소를 구별한다.



08 / KOREAN SUPPLY CHAIN

한국 공급망은 직접 신용노출과 간접 수요노출이 다르다

확인된 거래와 산업적 연결을 구분하며, 후자를 개별 납품계약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확인된 상업적 연결 | Solidigm → CoreWeave

2026년 8월 5일 양사는 CoreWeave가 기업용 SSD 생산능력에 우선 접근하는 다년 계약을 발표했다. Solidigm은 SK하이닉스의 자회사다. 공개문은 거래금액·연간 물량·결제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10]

국내 노출 유형	수요·신용의 전달 경로	확정할 수 없는 내용
SK하이닉스·Solidigm eSSD	위 다년 공급능력 계약을 통한 연결	그룹 매출 내 비중, 매출채권·손실액
HBM 공급자 SK하이닉스·삼성전자	칩 설계·패키징·서버 조달을 거치는 수요	모든 최종 클라우드가 직접 채무자라는 가정
서버 DRAM·NAND	고객 제품·서버 구성과 재고를 통한 간접 영향	특정 차입자의 감축률을 업계 전체에 적용
국내 장비·소재·기판	반도체 고객사의 증설·가동·검수 일정	최종 인프라 투자 총액을 공급사 매출로 환산

HBM·서버 메모리 사업 범위는 공식 사업자료를 토대로 구분한다. 이 표는 특정 AI 인프라 기업에 대한 미공개 HBM 공급사 선정 또는 직접 결제 관계를 전제하지 않는다. [11] [12] [13]

국내 투자자의 확인 순서

① 직접 계약법인 ② 지급·보증 주체 ③ 출하·검수 시점 ④ 제품 재배치 가능성 ⑤ 대금 회수. 최종 고객의 차입이 공급사 신용손실과 1:1로 대응하지 않는다.



09 / MEMORY DEMAND QUALITY

장기공급 협의와 실제 회수 가능한 주문을 구분한다

HBM·서버 DRAM·eSSD의 수요는 하나의 비율로 움직이지 않는다.

SK하이닉스는 2분기 발표에서 핵심 고객을 포함한 10여 곳과 다년 공급계약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수요 가시성을 높이려는 방향이지, 모든 협의의 체결·가격·선수금 조건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11]

공급 단계	확인할 지표	신용 악화 시 분석할 변수
HBM 고객 승인·양산	승인 제품, 양품 출하, 검수	제품 세대·고객 전환에 필요한 시간
서버 DRAM 구매	가격·비트 출하·고객 재고	가격 효과와 실제 물량 효과의 분리
eSSD 공급능력 계약	용량 확보와 실제 출하의 구분	우선 공급권, 호출 물량, 지급 조건
설비·장비 발주	투자 승인·인도·가동 시점	단계 집행, 검수 지연, 공급자 운전자본

전사 실적과 고객 노출은 별도의 숫자다

삼성전자의 3분기 연결 잠정치는 매출 약 195조원, 영업이익 약 107.4조원이다. 전사 잠정이익은 HBM이나 특정 고객의 실적이 아니며, 해당 수치만으로 미래 주문의 신용위험을 계산할 수 없다. [12]

수익성의 지속성은 공급·가격·회수의 결합이다

메모리 공급이 빠듯한 상태에서는 특정 고객의 연기를 다른 수요가 흡수할 수 있다. 반대로 공급능력 확대와 수요 악화가 겹치면 고객 신용보다 산업 재고가 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는 확인할 시나리오다.

차별화된 관점

HBM을 포함한 고부가 제품 비중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회수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다. 매출 구성과 현금의 질을 함께 본다.



10 / COLLATERAL & FUNDING LAB

담보가치 하락은 금리보다 자기자본 요구를 먼저 키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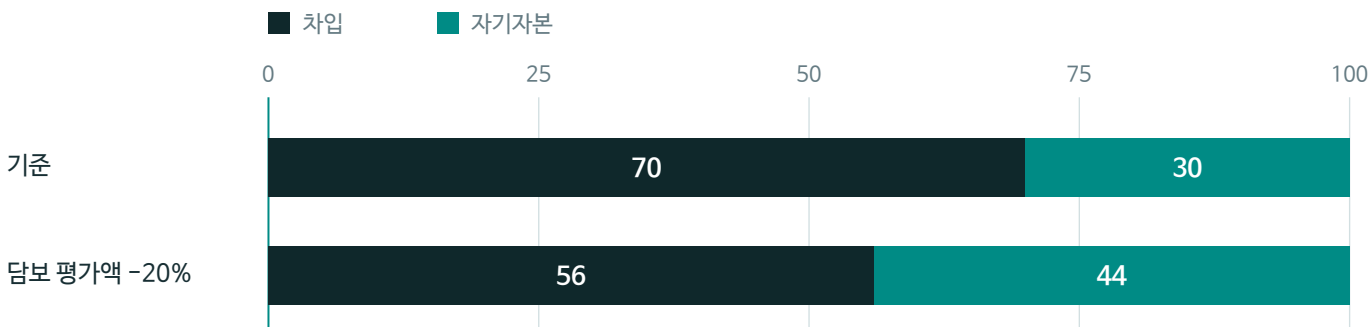
설명용 모형 A | 투자비 100, 자기자본 30, 차입 70에서 출발한다.

신규 투자비는 100으로 고정한다. 담보 평가액 100에 대출인정률 70%를 적용하면 차입 가능액은 70이다. 평가액이 80으로 낮아지면 한도는 56이 된다. 이 모형은 신규·차환 심사를 설명하며, 기존 계약에 즉시 추가 담보 의무가 생긴다는 뜻은 아니다.

설명용 시나리오	기준	금리만 상승	담보·금리 조정
대출금리	8%	12%	12%
담보 평가액	100	100	80
허용 차입 / 자기자본	70 / 30	70 / 30	56 / 44
연간 현금이자 ¹	5.60	8.40	6.72

같은 투자비를 충당하는 자금 구성

투자비=100 · 설명용 가정



차입 $80 \times 70\% = 56$, 자기자본 $100 - 56 = 44$. 기존 자기자본 대비 추가 부담은 $14 \div 30 = 46.7\%$ 다.

¹ 단순 연간 이자=차입×금리. 원금상환·수수료·헤지·세금·유지투자 미반영. 모형의 금리·평가액·대출인정률은 실제 회사나 시설의 조건이 아니다.

한국 공급망으로의 연결

최종 사용 수요가 남아도 추가 자기자본을 구하지 못하면 장비 매입이 늦어진다. 반대로 자금 투입자가 바뀌면 물량은 유지되고 발주 시점·가격·납품 주체가 조정될 수 있다.



11 / WORKING CAPITAL LAB

주문이 취소되지 않아도 대금 회수 지연은 현금을 묶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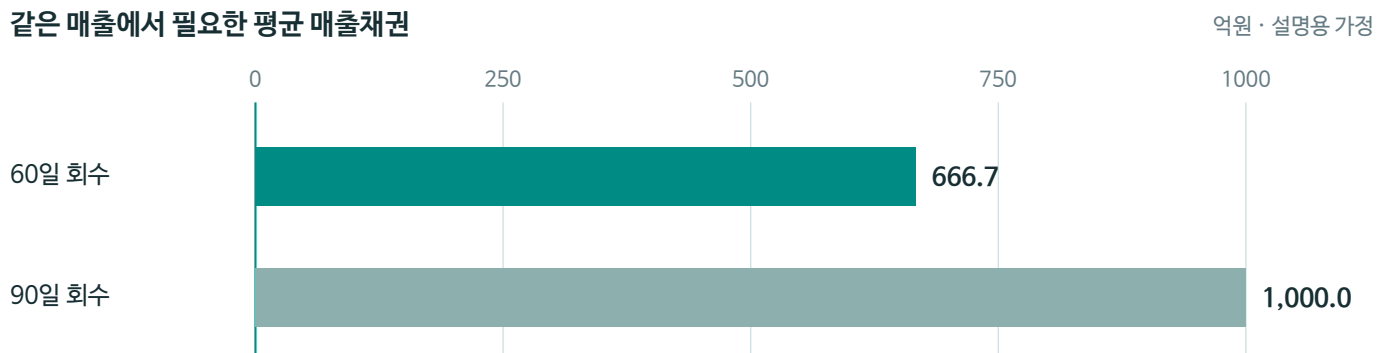
설명용 모형 B | 동일한 분기 매출에서 매출채권 회수기간만 바꾼다.

모형의 전제

분기 신용매출 1,000억원, 분기 90일, 균등 매출을 가정한다. 회수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길어지되 판매량·가격·대손·매입채무는 변하지 않는다고 둔다.

항목	회수 60일	회수 90일	증가 부담
추정 평균 매출채권	666.7억원	1,000.0억원	333.3억원
추가 자금의 연 8% 비용	—	—	연 26.7억원

같은 매출에서 필요한 평균 매출채권



매출채권=분기 신용매출÷90×회수일수. 추가 연 비용=(1,000÷90×30)×8%=26.7억원.

금융비용과 신용손실은 구분한다

연 26.7억원은 추가로 묶인 자금의 단순 연간 비용 가정이다. 매출 감소나 영업손실, 대손 발생액을 뜻하지 않는다. 지연이 일시적 이면 실제 비용은 기간에 비례해 달라진다.

국내 기업 공시에서 확인할 부분

매출 증가와 함께 계약자산·매출채권 연령·재고가 더 빠르게 늘어나는지 본다. 주문 총액보다 현금 회수의 속도가 공급자의 재투자 여력을 먼저 제약할 수 있다.



12 / RISK TRANSFER

잔여 용량 매입과 전략투자는 위험을 없애기보다 옮긴다

같은 산업 생태계의 계약을 서로 독립적인 최종수요로 더하지 않는다.

CoreWeave의 2025년 9월 9일 NVIDIA 원계약 공시는 초기 63억달러 규모와 2032년 4월까지의 잔여 미판매 용량 매입을 설명한다. 의무에는 인도·서비스 가용성과 종료 관련 조건이 붙는다. 아래 분석은 그 원계약의 구조를 다룬다. [9]



흔들하기 쉬운 해석	구분해야 할 내용
용량 매입자 = 채무 보증인	용량 대금 지급과 차입원금 상환보증은 다른 의무다.
전략적 투자 = 추가 최종수요	지분·대출·서비스 구매의 목적과 청구권을 구분한다.
한쪽의 수주 = 산업 전체의 순증 수요	같은 용량의 재판매·재임대를 중복 집계하지 않는다.
매입 약정 = 모든 미래 물량 보장	적용 자산·기간·이행·종료 조건과 현재 잔액을 확인한다.

위험 이전이 유효한 경우도 있다

지급능력이 있는 수요자와 확정된 가동조건은 자금조달을 도울 수 있다. 이를 무조건 부실한 순환거래로 단정하는 것도, 무조건적인 안전장치로 보는 것도 모두 피해야 한다.

독자에게 남길 구분

공급계약은 수요의 근거이고, 자금조달 계약은 투자 실행의 근거다. 두 계약의 당사자와 조건을 연결해야 실제 위험 부담자를 찾을 수 있다.



13 / SCENARIO MATRIX

기본 경로는 자금 확보 프로젝트로의 주문 재배분이다

TradeLens의 조건부 산업 판단. 실현확률·주가·매출 전망치를 제시하는 표가 아니다.

시나리오	함께 나타나는 조건	한국 공급망의 경제적 의미
A. 수요 견조·자금 확보 기본 경로	유료 사용·갱신 유지; 인출·전력·가동 진척	HBM·서버 메모리 수요 유지; 고객·납기별 선별
B. 수요 견조·자금 제약	계약 수요는 남으나 담보·자기자본 부족	연기·분할 발주, 다른 사업자로의 이동 가능성
C. 수요 약화·유동성 확보	자금은 있으나 갱신가격·가동률 약화	증설 억제, 재고·가격 조정; 현금만으로 수요 복구 불가
D. 수요·자금 동반 약화	가동·사용 감소와 차환·추가 조달의 약화	폭넓은 취소·자산 매각·대금 회수 압박 위험

기본 판단을 강화하는 증거

신용시장 변동에도 자금 인출과 전력 확보가 이어지고, 실제 유료 사용·설치·납품·현금 회수가 유지되는 경우다. 특정 사업자의 연기를 다른 수요가 흡수하는지도 본다.

기본 판단을 뒤집는 증거

여러 투자기업에서 갱신가격과 가동률이 함께 내려가고, 대체 발주 없이 공급망 재고와 연체가 누적되는 경우다. 이때는 재배분보다 산업 총수요의 하향 조정에 비중을 높여야 한다.

포지션 청산과 산업 수요는 별개다

단기 금융시장 반등만으로 위험이 정상화됐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반등 뒤 실제 자금·가동·발주·수금이 연결되는지 검증한다.



14 / OUTLOOK & MONITORING

한국 반도체의 다음 판단 기준은 자금·출하·수금의 동행이다

수요의 강도를 평가할 때 공급자의 실적과 고객의 지급능력을 함께 본다.

확인할 단계	판단을 강화하는 신호	판단을 약화시키는 신호
자금	신규 약정의 인출조건 충족·유동성 확보	한도는 크지만 인출·자기자본 확보 지연
실행	전력·설치·검수 일정의 진척	설치 대기·인수 지연·계약 변경 누적
사용	유료 사용과 갱신가격의 유지	가격·가동률 약화 및 고객 이탈 동반
국내 공급자	양품 출하와 회수, 재고의 균형	매출보다 빠른 재고·채권·연령 증가

01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반도체의 판매 성장과 투자기업의 금융위험이 서로 다른 속도로 재평가된다.

02

왜 중요한가

새 수요를 현실의 장비 주문으로 만들려면 먼저 자금과 가동 조건이 필요하다.

03

누가 경제적 효과를 얻나

자금 확보된 고객, 재배치 가능한 공급능력, 회수조건이 강한 공급자의 상대적 여지가 크다.

04

무엇이 반증하는가

광범위한 유료 수요 약화와 신규자금·수금의 동반 약화는 재배분 가설을 훼손한다.

최종 판단

신용위험은 반도체 수요의 반대말이 아니다. 수요를 실행할 자금과 위험을 떠안을 계약의 가격이다. 국내 공급망은 그 가격이 발주·납기·현금으로 전달되는 지점에서 구분해야 한다.



15 / SOURCE REGISTER

핵심 사실과 원문을 연결한다

청록색 본문 출처번호, 자료명 또는 '원문 열기'를 누르면 해당 원문으로 이동한다.

01. TSMC | Third Quarter 2026 Earnings Release

원문 열기

2026.10.15 · 연결 3분기 매출·순이익·매출총이익률; TIFRS

02. Reuters | CoreWeave's AI contracts and the lenders financing its build-out

원문 열기

2026.10.15 · 시장 보도; 차입 우려와 주식·채권 약세

03. CoreWeave | Second Quarter 2026 Results

원문 열기

2026.08.11 · 2분기·상반기 연결 손익/현금흐름, 6월 말 backlog 정의

04. Microsoft | FY2026 Q4 Earnings Release

원문 열기

2026.07.29 · 6월 말 종료 3개월 영업현금·유형자산 현금취득

05. CoreWeave | \$8.5 Billion DDTL 4.0 Financing Facility

원문 열기

2026.03.31 · 거래별 담보·차입한도·등급·금리; 전사 등급 아님

06. CoreWeave | DDTL 5.5: \$2.6 Billion Loan Facility

원문 열기

2026.08.10 · 약 5년 차입과 평균 약 3년 고객계약; 갱신 위험

07. CoreWeave | \$3.7 Billion Convertible Senior Notes: Pricing

원문 열기

2026.09.18 · 2.875% 표면금리·2033년 만기·전환/캡드콜 조건

08. CoreWeave | New Compute Capacity Contracted at Higher Prices

원문 열기

2026.09.17 · 3~6개월 계약의 연환산 단가; 가동률/연간 실적 아님

09. CoreWeave · SEC | Form 8-K: NVIDIA Capacity Agreement

원문 열기

2025.09.15 · 2025.9.9 원계약의 잔여 용량 매입·인도·가용성 조건

10. CoreWeave · Solidigm | Multi-Year Enterprise SSD Capacity Agreement

원문 열기

2026.08.05 · eSSD 우선 공급능력 확보; 거래금액·신용조건 미공개

11. SK hynix | 2Q 2026 Financial Results

원문 열기

2026.07.29 · HBM·서버 메모리, 장기공급계약 협의·단계적 투자

12. Samsung Electronics | 3Q 2026 Earnings Guidance

원문 열기

2026.10.08 · 전사 연결 잠정치; DS·HBM 실적과 구분

13. Samsung Electronics | Second Quarter 2026 Results

원문 열기

2026.07.30 · DS·DX 사업 구성과 연결 실적의 적용 범위

자료 적용: 회사 실적·계약은 각 공표일의 범위로 사용한다. 보도는 금융시장 상황의 근거이며 회사 공시와 구분한다. 계약금액·약정한도를 매출·인출액으로 합산하지 않는다.



작성 기준·면책고지·보고서 이용 안내

확인된 사실, 회사 설명, TradeLens 분석과 설명용 가정을 구분한다.

항목	적용 기준
기준일·기간	분석 기준일 2026.10.16. TSMC는 3분기, 현금 비교는 4~6월 연결 기준. 계약은 각 공표일의 조건이다.
비교의 범위	Microsoft와 CoreWeave 현금 비교는 영업현금에서 유형자산 등 현금취득만 차감한 참고값이다. 공통 FCF나 AI 단독 현금이 아니다.
신용·계약	금융거래별 등급과 전사 신용을 구분한다. 대출약정·계약잔액·실제 인출·수금은 다른 단계다. 2025년 NVIDIA 원계약은 구조 사례다.
한국 공급망	확인된 Solidigm 공급계약과 산업적 수요 연결을 구분한다. 미공개 고객·물량·매출·매출채권·손실을 추정하지 않는다.
설명용 모형	11쪽 모형 A는 담보평가·금리·신규 투자자금, 12쪽 모형 B는 회수기간·추가 운전자본을 비교한다. 실제 회사 조건·전망이 아니다.
제공 범위	산업·신용·사업구조·현금흐름 분석. 매수·매도 의견·시점, 적정주가·목표주가, 개인별 투자자문은 제공하지 않는다.

표시 수치는 원수치 계산 후 반올림했다. USD bn=10억달러. 국문의 1억원은 영문의 KRW0.1bn이다. 계약·현금 자료는 기간과 회계범위를 맞추며, 모형의 변수는 실제 은행·회사 조건과 구분한다.

면책고지

본 보고서는 기술·산업 및 기업의 사업구조·성장성·수익성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매수·매도 의견·시점, 적정주가·목표주가 및 이용자별 투자자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록 정보와 분석은 작성일 기준이며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망·추정 및 예시 계산에는 불확실성이 있으며, 원금이나 투자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판단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계 법령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트레이드렌즈는 본 보고서 이용에 따른 투자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 및 이용 제한

본 보고서의 서술·도표·디자인·편집 및 구성 중 트레이드렌즈가 권리를 보유한 부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 개인 열람·보관 외에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편집·번역·재가공하거나 복제·전송·재게시·재배포·판매할 수 없습니다. 유료·무료 제공 및 파일·화면 캡처 등 형태를 불문하며, 로고·출처·권리표시를 제거하거나 제3자 명의로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이용과 제3자 자료의 개별 이용허락조건은 그에 따릅니다. 공유는 트레이드렌즈 공식 게시페이지의 원문 링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